

# 과잉 생산에 가격 폭락 피해 고스란히 떠 안을 듯

##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전남쌀

쌀 과잉 생산은 최대 생산지인 전남지역에 가장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 경기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국에 쌀이 넘쳐나면 대형마트 등이 물류비가 비싼 전남쌀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전남쌀이 전국 쌀값 하락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남쌀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 국내 쌀 소비가 줄고, 대형마트 등 대량 소비처들이 전남쌀을 외면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 1인당 1년간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970년 136.4kg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65.1kg에 그쳤다. 국민의 쌀 소비가 줄면서 쌀이 남아돌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전남의 쌀 물류비가 비싼 것도 전남 쌀이 저평가되는 중요한 이유다. 현재 20kg 기준, 전남 쌀의 물류비는 2000원, 전북 1000원, 충북 500원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대형마트가 전남쌀을 외면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인구 감소도 전남쌀이 저평가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쌀생산은 전남 84만t, 전남 81만t, 전북 68만t, 경북 57만t, 경기 42만t, 경남 38만t, 충북 22만t, 강원 18만t이다. 이 중 경상도 지역은 생산량과 지역 내 소비량이 비슷해 자체 소비되고 있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경기미와 충남 쌀을 먹고 있으며 일부 전라도 쌀을 소비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쌀 생산량은 많은데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적어 타지역으로 유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물류비가 비싸고,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 탓에 제값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 쌀값이 하락하면 그 피해도 전남

## 친환경 생산 품질만큼 대접 못 받아

## 수도권 소비 물류비 비싸 외면 심화

## 유통구조 개선·北지원 특대책 필요

지역이 가장 크다. 실제,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지난 2009년 전남의 대표 쌀이 길거리에서 '떨어 판 매' 되기도 했다.

전남쌀의 판로가 좁은 것은 경기미가 무조건 맞았다는 소비자의 변하지 않는 인식 탓도 있다.

과거 정부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통일벼(안남미) 위주의 영농 정책을 폈고, 전통적으로 쌀이 많이 나왔던 전남지역에 통일벼가 널리 퍼졌다. 반면 경기미는 추경벼(고시히가리)를 고수하면서 '전남 쌀은 맛이 떨어지는 안남미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됐다.

이 때문에 친환경 재배를 하더라도 전남쌀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 농협이 지난해 40kg 쌀 매입가격은 전남 5만1436원, 전북 5만1444원이었고, 경기는 6만5000원이었다.

전남쌀의 우수함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됐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선정한 '고품질브랜드 쌀' 12개 가운데, 10개가 전남(5개)과 전북(5개)의 브랜드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 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대사의 품질 검사 결과, 마트에서 2만5000원에 팔리는 전남의 쌀(10kg)은 종합점수 92점을 받았고 이보다 만원 가까이 비싼 여주 쌀은 종합점수 86점에 그쳤다.

이에 전남쌀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 마케팅과 유통 구조를 만들고,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 쌀 과잉생산으로 벼 농사를 많이 짓는 전남지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추수를 앞둔 담양군 수북면 들녘.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 선거구 획정위 '무늬만 독립기구'

## 위원 여야 4명씩 동수 지역구수 결정 또 불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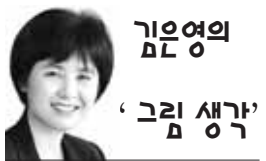
역대 최초로 국회 외부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무늬만 독립기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안건마다 '4대4'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이 엿새 남은 7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의 출발점인 선거구 수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지역구 수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여야 놓여준 의원들의 집단 반발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데 이어 지난 6일 재소집한 회의로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선거구 획정 기준은 국회가 만들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자 획정위가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자체 기준을 만들어 획정 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반발에 그친 것이다.

획정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 기사도 지역구 수를 확정하지 못하면, 오는 13일 획정안 국회제출 법정시한 준수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황금빛 들녘의 눈부신 색채 누가 재현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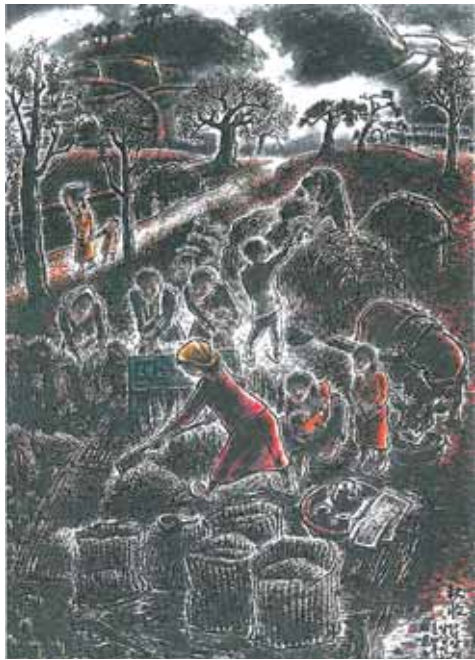
(130) 가을

"가을이구나!~/~ 우리의 정신을 고문하는/ 우리를 무한 쓸쓸함으로 고문하는/가을, 원수 같은. //나는 이를 깨물며/정신을 깨물며, 감각을 깨물며/너에게 살의를 느낀다/가을이여, 원수 같은." <정현종 작 '가을, 원수 같은' 중에서>

가을날이 얼마나 사무치게 좋았으면 고문, 살의, 원수와 같은 역설의 단어를 추려냈을까? 감정을 간수하지 않아도 되는 시인의 표현을 무한 부러움으로 되뇌어본다.

가을이다. 이 계절은 색깔로 주변을 압도한다. 푸르른 하늘, 황금빛 들녘의 눈부신 색채를 그 누가 재현할 수 있을까? 가을 들녘을 바라볼 땐 어김없이 지난날 추억에도 같았던 가을 들녘의 정경을 담은 한 점의 그림이 떠오른다. 한 국가가 선했 박은용(1944~2008)의 작품 '추수'(1998년 작)는 이제 사라지고 없는 정겨운 가을 들녘을 보여준다. 봄날 씨 뿌리고, 모내기 하고, 추수 후 한가한 날 주막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는 농부의 모습처럼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농촌의 서정 중 가장 절정의 한 순간이다.

진도 출신의 석현은 생전에 주위로부터 고초와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작가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순수한 감성의 덩어리로 희망을 그렸고, 흡사 광기와도 같은 예술의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십 수 년 전 화가를 만났을 때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던 그의



박은용 작 '추수'(1998년)

예술세계와 인생역정에 귀 기울이던 기억이 아련하다.

첫 번째 개인전에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무등산으로 들어가 1년 동안 20시간씩 작업한 결과 펼쳐진 발표전은 큰 화제가 됐다. 점을 찍는 방법으로 공들여 그린 그의 '점묵법' 작품들은 두근두근 회자됐다. 연한 먹에서 진한 먹까지의 10단계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씩 건조한 다음 붓 자국을 탐처럼 쌓아올렸다 해서 '탐묵법'이라고도 했던 독특한 기법이 특징인 그의 작품은 한번 보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다. 속속 붓끝으로가 아니라 한 점 한 점 탐을 쌓아올린 그의 화폭은 마음으로 일군 가을 들녘만큼이나 가슴 가득 차오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초특가 일본여행

##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 비행기로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459,000원 / 54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키타이로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지마 오도리이  
▶ 미야지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지마 오층목탑, 다카부타이  
▶ 호텔[기타큐슈 1급호텔]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신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분루  
▶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트로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4일 64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키타이로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지마 오도리이  
▶ 미야지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지마 오층목탑, 다카부타이  
▶ 전통 온천호텔 또는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2일차** 일본 유신의 고장! '무사의 거리 요시다 쇼인의 신사'  
▶ 다리고과와 바다가 아름다운 "즈노시마등대" 자유시간  
▶ 히노야마 전망대 관광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신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분루  
▶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트로  
▶ 자연사박물관 관광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4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 공통포함사항 국제선 항공료, 무안 공항세, 전정보행료, 현지 공항세, 유류할증료, 펜션(2인1실) 또는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1억원 여행보험, [특전] 선착순 40명 무안공항 왕복 수속

■ 공통불포함사항 싱글차지 개인 경비 가이드/기사 경비(30,000원)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